

젠더주의의 도전에 봉착한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과제 -한국 신학계는 패륜적 성혁명을 막아낼 준비가 되었는가?

곽혜원¹⁾ 21세기 교회와 신학 포럼 대표

1. 성규범 해체-가정 해체-기독교 해체의 시대조류 속에서 발흥한 젠더주의

지난 200년 동안 서구세계의 영적·정신적 기류는 전통적 성규범과 성윤리, 일부일처제 결혼과 가정공동체, 기독교 신앙과 가치체계에 적대적인 방향으로 흘러왔다. 서구 근·현대사에서 이 흐름은 첫 번째 성혁명(sexual revolution)이 일어났던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오늘날 두 번째 성혁명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전개되어왔다. 성혁명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이들은 서로 다른 동기와 이해관계를 가졌지만, 하나의 핵심 목표를 위해 의기투합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규범의 해체-가정의 해체-기독교의 해체’였다. 종교적으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기독교 교리를 파괴하기 위해 전력투구했는데, 이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류 역사에 고상한 문명과 높은 도덕성을 부여했던 유대-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다.

당시에 상당수 사상가와 지성인들(대표적: 장 자크 루소, 어거스트 콩트, 샤를 푸리에, 프리드리히 니체, 지그문트 프로이트, 칼 융, 빌헬름 라이히, 알프레드 쾨제이, 존 머니 등)은 전통적 결혼과 자녀양육의 요람인 가정을 해체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들은 세상적 명성을 얻고 사탄의 도움을 받는 듯 보였지만, 결국 성적인 혼란과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 망가진 인생을 살아간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의 가정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매우 불행하고 파괴적이

1)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한세대와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독일 튀빙엔(Tübingen) 대학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Dr. theol.)를 받았다. 현재 21세기 교회와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연구공동체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를 이끌고 있다. 저서로는 Das Todesverständnis der koreanischen Kultur (한국문화의 죽음이해), 『현대세계의 위기와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론 전통과 실천적 삶』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자살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우수저작), 『제2종교개혁이 필요한 한국교회』 (공저),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공저), 『죽음 목회』 (공저), 『과학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공저), 『우리는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가』 (공저)가 있으며, 역서로는 위르겐 몰트만(J. Moltmann)의 저서들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희망의 윤리』를 번역하였다.

기까지 했는데, 일례로 자기 자녀들을 유기했고 술과 마약에 의존했으며 광기와 절망 속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이들은 결혼 및 가족제도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정을 파탄 냈을 뿐만 아니라, 동시대인들과 후세대들을 극도의 혼란과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다.

많은 활동가들 또한 합세하여 성적인 억압을 제거하고 부모와 자녀관계를 단절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였는데, 특별히 20세기 이후 일어났던 성규범 해체-가정 해체-기독교 해체의 모든 기류는 맑시즘(Marxism)에 영적·정신적 기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²⁾ 칼 맑스(K. Marx)의 마지막 유지를 담은 저서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에는 “성스러운 가족(성부·성자·성령을 지칭)의 비밀은 지상의 가족이다. 전자를 사라지게 하려면, 이론과 실제에서 후자가 먼저 파괴되어야 한다. ... 일부일처제는 촌충(기생충)과 같다”라는 유명한 어록이 수록되어 있다.³⁾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파괴하려면 가정을 해체시켜야 하는데, 이 가정은 일부일처제에 견고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장려하고 일부다처나 일처다부, 심지어 다수를 성적으로 편력하는 폴리아모리(복수연애·다중섹스: poly-amory)까지 옹호해서 성규범을 해체시키려는 것이 맑시즘이 감행했던 공산주의 혁명의 의도이자 결론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규범 해체-가정 해체-기독교 해체 흐름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네오 맑시즘(Neo-Marxism)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이다. 네오 맑시즘은 정통 맑시즘의 오류를 비판하면서 전략을 수정했는데, 이를 통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선동한 무력사용의 폭력혁명을 지양하고 문화혁명을 기획함으로써 기독교 해체에 전력 질주한 문화 맑시즘(Cultural Marxism)의 성향을 드러내게 되었다. 기존의 맑시즘에 한계를 느낀 네오 맑시즘은 공산주의 혁명을 주도면밀하게 완수하기 위해 칼 맑스의 사회과학적 분석(노동력에 대한 자본주의의 착취)에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의 인간정신적 분석(성충동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억압)을 융합시킴으로써, 이 사상은 프로이트-맑시즘(Freud-Marxism)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네오 맑시즘이 인간의 성욕을 사상적·정치적 도구로 악용하여 ‘성의 정치화-정치의 성애화’(‘섹스의 정치화-정치의 섹스화’)를 추구함으로써 기독교 문화를 전멸시키고 사회와 국가를 완전히 전복시키려고 획책했다는 사실이다.

네오 맑시스트 중에서 특히 이탈리아 최고의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A. Gramsci)가

2) G. Kuby/정소영 옮김, 『글로벌 성혁명: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라』 (서울: 밝은 생각, 2018), 39-40.

3) F. Engels/김경미 옮김,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서울: 책세상, 2018).

주목할만한데, 그가 바로 수정된 공산주의 혁명의 방법론으로서 문화 맑시즘을 주창한 장본인이다. 그람시는 기독교를 공산주의 혁명의 최대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특히 기독교 문화와 가치체계를 철저히 붕괴시키지 않으면 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통 맑시즘이 프롤레타리아 하부구조에 있어서 계급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획책한 것과 달리, 그는 지식인들을 혁명의 주체세력으로 동원하여 상부구조를 제압함으로써 이데올로기 투쟁을 하는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으로 전략을 전환하였다.⁴⁾ 이를 위해 그람시는 정치·문화·교육·사법·언론·학술·종교 등 상부 권력기관에 침투하여 장기적으로 진지를 구축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hegemony)를 장악한 후(진지전), 기존 체제에 대항하는 헤게모니적 가치관 및 세계관이 대세를 점령하면 기동성있게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했다(기동전). 이것이 맑스와 차별적인 그람시만의 독특한 혁명전략인데, 이후 그람시의 사상은 서구 현대사에서 좌파세력의 전략지침서로 막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서구 현대사에서 성규범 해체-가정 해체-기독교 해체와 관련하여 빌헬름 라이히(W. Reich)의 악영향도 대단히 심각한데, 사상사에서 ‘성정치’(Sex Pol)라는 용어를 최초로 창안한⁵⁾ 그의 최대 관심사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성해방이었다. 라이히는 한 사회의 성적인 변화과정이 항상 그 사회의 문화적 변화과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간파하면서 성적 억압의 제거에 주력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부일처제 결혼과 자녀양육의 도구로서의 전통적 가족을 해체시키는 데 강조점을 두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성혁명』(*Die sexuelle Revolution*)에서 성적 억압을 제거하고 부모-자녀관계를 해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일단 이것이 동력을 얻으면 체제 전복을 위한 나머지 목표들(기독교교회와 국가공동체 말살)은 저절로 실현된다고 강변하였다.⁶⁾ 한때 공산당에 가입하여 성정치 운동을 조직하기도 했던 라이히는 당대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성도덕을 붕괴시키려는 그의 이론이 68혁명의 돌파구를 제공하면서 패륜적 성혁명에 불을 지피게 되었다.⁷⁾

4) ‘조용한 혁명’의 어젠다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속적 사회변화로 혼란을 조성한다. 2.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3. 가족을 해체시킨다. 4.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한다. 5. 교회를 해체시킨다. 6.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한다. 7. 인종 차별을 범죄로 규정한다. 8.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킨다. 9.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국가나 기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킨다. 10.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 매체의 수준을 저급하게 만든다. 11. 과도한 음주를 홍보한다.

5) 빌헬름 라이히는 성충동 해방이론인 ‘성정치학’을 주창하면서 정치가 거시적 제도의 차원을 넘어서 미시적 생활세계의 차원, 특히 사적인 성관계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일처제 폐지와 성윤리 해체를 부르짖으면서 진정한 해방이란 성해방을 동반해야 하며, 성혁명을 이루기 위해선 성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6) W. Reich/윤수중 옮김, 『성혁명』 (서울: 중원문화, 2011).

그뿐만 아니라 좌파들의 지적인 무장을 위한 핵심 브레인이자 네오 맑시즘과 동일한 사상적 흐름에 속하는 프랑크푸르트학파(the Frankfurt school)가 지성인들을 사로잡으면서 정규범 해체-가정 해체-기독교 해체를 정당화하는 이론적·사상적 체계가 구축되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공산주의의 원칙, 곧 사유재산 철폐와 함께 가족과 기독교의 파괴를 통해 사회를 변혁하려는 목적에서 앞서 소개한 네오 맑시즘이 맑스의 사회과학적 분석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분석과 융합시킨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프랑크푸르트학파는 현존하는 사회질서를 전복시키는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해방을 통한 가족과 기독교 해체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정착하였다. 특별히 빌헬름 라이히의 성정치를 계승한 헤르베르트 마르쿠제(H. Markuse)의 저서 『에로스와 문명』(*Eros and Civilization*)은 정규범 해체-가정 해체-기독교 해체를 위한 결정적 동력을 제공했는데, 여기서 마르쿠제는 성욕이 억압되지 않는 사회가 모든 이들이 추구해야 할 유토피아라고 역설하였다.⁸⁾

두 번째 성혁명의 포문을 연 68혁명은 빛나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통해 탄생한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반(反) 체제-반(反) 문화-반(反) 기독교 운동을 하나로 결집시키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서구 기독교 문명의 지지기반을 파괴할 거센 시대조류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사실 68혁명은 체제를 전복시켜 정권을 찬탈했다기보다 서구세계의 사상과 사고방식, 더 나아가 세계정신을 완전히 파행적으로 뒤바꿔놓은 문화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구세계는 패륜적 성혁명을 감행한 68혁명을 결정적 분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양분될 만큼 문명사적으로 대전환을 겪었는데, 그 패해와 악영향이 대단히 심각하다. 이로써 68혁명은 유럽에 살았던 한 세대 지성인들의 사유체계를 혁명적으로 전복시켰는데, 타락과 패륜의 길을 걸었던 이들 중에서 최고교육을 받은 핵심그룹이 오늘날 글로벌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예술·언론·법조계, 심지어 종교계 전반에 주도권을 장악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유럽을 넘어 글로벌 세계를 또다시 뒤집어놓게 된 것이다.⁹⁾

마침내 지난 200년간 이어졌던 지성인들과 활동가들의 집요하고 패역한 작업이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 이하 젠더주의)의 발흥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맑시즘을 근간으로 세력을 확장한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과 성정치-성혁명 이론(theory of sexual politics & sexual revolution)이 결합하여 발흥한 젠더주의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7) 라이히의 어록 중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너의 성충동을 만족시켜라. 그래서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라는 낙원을 창조하라!”가 특히 68혁명 세력에게 강하게 각인되었다.

8) H. Markuse/김인환 옮김, 『에로스와 문명』 (서울: 나남출판, 2004).

9) Cf. 이정훈,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서울: 킹덤북스, 2018), 58-59.

인류역사에서 전통적 성규범과 가정, 기독교에 가장 적대적인 시대사조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인간의 출생 시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문화·심리적 성으로 간주되는 젠더(gender)를 통해 후천적으로 임의대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사조이다. 젠더주의의 대표주자 주디스 버틀러(J. Butler)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 틀 자체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남녀의 천부적 성별을 허물어버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¹⁰⁾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단 한번도 인간 존재의 본질이 되는 남녀 성정체성이 파괴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것은 인류문명사에 대재앙을 자초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젠더주의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성한 결합인 일부일처제 대신 무수히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들(LGBTQIA)의 폴리 아모리를 옹호함으로써 성규범 해체와 가정 해체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특히 ‘인권’ 혹은 ‘성적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레즈비언적(lesbian)·게이적(gay)·바이섹슈얼적(bi-sexual)·트랜스젠더적(transgender)·인터섹슈얼적(intersexual) 파트너십, 그 외 온갖 괴이하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대안적 생활공동체(=시민 결합, civil union)로 미화하는 패륜적 성혁명을 강행하는데, 이 성혁명의 핵심적 요체는 명백히 성규범의 철쇄를 통한 가정 해체, 기독교 해체이다. 사실상 젠더주의는 합리적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 군상들, 각종 부도덕한 성관계를 맺는 젠더 퀴어들(gender queer)¹¹⁾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 그 실체적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젠더주의가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장구한 세월 인류사회를 보편타당하게 지배해왔던 관습과 규범이 지난 50년 사이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천부적으로 부여된 남녀 고유의 신체적 기능은 물론 남녀 양성이 결합하여 이루는 결혼 및 가정 역시 해체되고 있다. 이것이 인류 문명사에 어떤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인지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다.

2. 젠더주의가 강행하는 패륜적 성혁명의 전략 및 특징

2.1 성별 해체의 젠더 주류화 - 파워 엘리트 & 젠더 페미니스트 주도 위로부터의 혁명

10) J. Butler/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서울: 문학동네, 2008).

11) 젠더 퀴어들에는 중성적·양성적 젠더 정체성: 안드로진(Androgyne), 남성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 개별적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젠더 정체성: 바이젠더(Bigender), 남성과 여성, 제3의 성 세 가지 젠더를 가진 젠더 정체성: 트라이젠더(Trigender),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느끼는 젠더 정체성: 에이젠더(Agender)·젠더리스(Genderless)·뉴트로이스(Neutrois), 남성과 여성을 비롯한 무수히 다양한 젠더들을 오가는 젠더 정체성: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 등 그 외 무수히 다양한 젠더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

젠더주의가 강행하는 패륜적 성혁명의 일차적 핵심 전략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별 해체를 지목할 수 있는데, 이것은 21세기에 들어와 특히 ‘젠더 주류화’(=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으로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다. 젠더 주류화 개념은 유엔(UN)이 주최한 1985년 제3차 세계여성대회 때 처음 토론되었고,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의 결의서를 통해 참여국들에게 촉구되어 각 행정부의 법적 준칙에 정착하였다. 1997년 유럽연합(EU)은 젠더 주류화를 회원국들의 의무라고 선포했고,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을 분기점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젠더 주류화를 실행하였다. 이를 결정적 계기로 서구 대학가에서는 ‘젠더학’(gender study), ‘퀴어 연구’(queer study)라는 새로운 학문분야가 확립되었는데, 교수진들이 나날이 확대되고 연구 인프라가 엄청난 성장일로에 있다.¹²⁾ 학계의 차세대들은 가장 장래가 촉망받고 유력한 최신 학문이라는 미명 하에 남녀 성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세뇌당하고 있다.¹³⁾

현재 서구세계에서 젠더 주류화는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지배적 이데올로기, 국가의 전체 영역에서 최고 순위를 차지하는 전략, 글로벌 파워 엘리트(power elite)의 배후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는 전략 중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다.¹⁴⁾ 이것은 고위층에 의해 강행되는 최고 전략이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체제 전반에 막대한 폐해를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이 무서운 정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 주류화는 대다수 사람들(일반인은 물론 전문가, 심지어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게조차)에게 매우 생소한 현실인데, 이것은 오늘날 처럼 개명한 민주 사회에서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만큼 젠더 주류화 정책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공개적 논의 없이 극소수의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만 거론되고 있으며, 선동적 선전과 기만적 용어조작으로 인해 그 실체적 진실이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젠더 주류화의 실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젠더 주류화는 ‘여성이 사회의 주류 영역에 참여하여 의사 결정권을 획득하는 형태로 사회체제가 바뀌는 현상(간단히 말해 ‘성차별 철폐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젠더 주류화가 겨냥하는

12) 서구의 대학에서 젠더주의가 차지하는 위상은 한때 공산주의 독재체제 하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이 차지했던 것과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G. Kuby, 『글로벌 성혁명』, 157.

13) P. Byerhaus, “Widersteht gegen Gender-Ideologie!”(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라!), 「기독교학술원 제10회 해외석학 초청강연 자료집」 (2016.06.10). 4.

14) G. Kuby, 『글로벌 성혁명』, 155.

‘성차별 철폐’는 중국적으로 차별의 근원이 되는 남녀 성정체성의 해체, 즉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법은 한계가 있으니 아예 성별을 해체시켜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결혼 및 가족제도가 왜곡된 성역할과 이에 따른 성적 위계질서를 파생시키기 때문에 이 또한 해체시켜 버리자는 것이 젠더 주류화의 숨은 전략이기도 하다.

특히 젠더 주류화가 무서운 것은 헌법에서 조례까지 ‘젠더 인지적 관점’(=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에서 모든 법체계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모든 공권력이 젠더 인식을 반영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이념을 담기 때문이다. 젠더 주류화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남녀평등을 급진적으로 뛰어넘어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하는데, 곧 젠더 주류화가 지향하는 ‘젠더 평등’(=성평등: gender equality)에서 평등이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남녀 양성평등(sex equality)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완전히 해체된 절대적 평등, 더 나아가 무수히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평등에 가깝다.¹⁵⁾

이처럼 젠더 주류화를 국제기구와 공권력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엔과 유럽연합이 젠더주의에 편승하여 젠더 주류화를 강행하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¹⁶⁾ 젠더주의 추종자들은 성혁명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유엔을 성혁명 추진 운동 본부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행정부에 젠더 주류화를 실행하도록 막강한 위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일부일처제 결혼 및 가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¹⁷⁾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오늘날 국제기구들이 동성애 옹호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동성애 옹호활동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현실이다. 과거에 유엔과 유럽연합은 전 세계인들의 희망의 등불이었지만, 현재는 젠더 주류화를 추진하고 성소수자들을 대변하는 권력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것이다.¹⁸⁾ 사실 유엔 총회나 이사회가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적은 없으나, 젠더주의 추진세력은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유엔의 지명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젠더 주류화의 위험성에 대해 독일 튀빙엔(Tübingen) 대학의 페터 바이어하우스(P.

15) 생물학적으로 명백히 다른 존재인 남성과 여성의 성정체성을 해체시켜 무조건 동일화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에 대한 헌법상 상대적 평등의 개념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反)인륜적 행위이다.

16) 같은 책, 81-102, 129-146.

17) 이정훈,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서울: 킹덤북스, 2018), 59.

18) G. Kuby, 『글로벌 성혁명』, 305.

Beyerhaus) 교수는 2016년 방한 당시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였다. 즉 그는 1789년 프랑스 혁명(정치적 신분제를 전복시킨 혁명), 1917년 볼셰비키 혁명(경제적 계급제를 전복시킨 혁명)과 함께 젠더 주류화를 ‘제3의 세계사적 혁명’ (생물학적 질서를 전복시킨 문화 인류학적 성혁명)이라고 일컬으면서 남녀의 성별질서, 결혼과 가정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인류문명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혁명이라고 한국 기독교계에 경종을 울렸다. 그러면서 바이어하우스는 이것이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창조질서로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부정하는 사탄적 원천을 지니며,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신론적·무신론적 이데올로기로서 총체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고 역설하였다.¹⁹⁾ 교황 베네딕트 16세(Pope Benedict XVI)도 젠더주의 안에 깊이 숨겨진 비(非)진리성과 문화인류학적 혁명을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유엔과 유럽연합 같은 유력한 국제기구, 서구세계의 파워 엘리트층이 젠더 주류화를 추진하는 현실을 통해 오늘의 성혁명의 특징이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과거의 시대적 변혁이 주로 힘없는 민초들의 불의한 상층부에 저항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작금의 패륜적 성혁명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파워 엘리트층이 주도하는 혁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68혁명을 분기점으로 불과 반세기만에 인류문명의 기본적 근간이 허물어지게 된 것은, 특히 68혁명 세력에 의해 충원된 막강한 국제기구, 선진국의 행정부 수반이 중추세력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성혁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날 패륜적 성혁명의 또 다른 특징은 젠더 페미니스트(gender-feminist)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혁명이라는 점인데, 젠더 페미니스트는 급진적 페미니즘과 젠더주의의 사상적 혼합인 젠더 페미니즘(gender-feminism)을 추종하는 세력이다. 지금까지 인류에게 파괴적 결과를 가져온 행위나 사상체계를 발전시킨 것이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오늘날의 성혁명은 인류역사상 극히 예외적으로 여성들이 주도하는 가공할만한 혁명적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선 현실을 통해 장구한 세월 극도로 억압받아왔던 여성들의 상처와 좌절,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절대다수의 여성들이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한많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류의 고질적 악행은 반드시 근절되고 진정성있는 해결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별 해체를 통해 인류(人倫)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것은, 인류문명을 파탄시키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선 본고 마지막 장에서 좀더 심층적으로 재논의하고자 한다.

19) P. Byerhaus, "Widersteht gegen Gender-Ideologie!"(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라!), 6.

2.2 성규범을 해체시키는 성애화 - 사회문화 전체(특히 다음세대)에 타락과 패륜의 확산

젠더주의는 사회문화 전체의 성애화(性愛化: sexualization)를 통해 목표를 실현하고자 함으로써, 성애화는 젠더 주류화와 함께 젠더주의의 핵심 전략에 속한다고 필자는 진단한다. 젠더주의가 강행하는 패륜적 성혁명의 핵심은 바로 성규범의 해체이며 그로 인한 악영향은 사회문화 전체의 성애화를 통한 타락과 패륜의 확산이다. 성혁명이 한창 진행 중인 서구세계에서는 성규범이 와해되고 도덕적·윤리적 기준의 해체가 강요됨으로써 음란의 규범이 형법을 통해 강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포르노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새로운 글로벌 재앙’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포르노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영적·육체적·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해악을 끼침으로써, 이를 통한 이 세상의 음란화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에 재앙과도 같은 파괴적 결과를 초래함은 주지의 사실이다.²⁰⁾

패륜적 성혁명이 휩쓸고 지나간 국가들에서는 성(性)과 관련된 강고한 규범들이 급속도로 풀려서 사람들이 점점 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특히 동성애가 또 하나의 목인된 성문화, 또 다른 인류의 대체적 쾌락이 되어가고 있다.²¹⁾ 그런데 동성혼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명백히 성혁명의 끝자락은 폴리 아모리로 귀결될 거리는 것이 필자의 예단이다. 성도덕 및 성규범의 와해는 문화가 부패한다는 징후인데, 이것은 개인에게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혼의 급증으로 인한 가족공동체의 붕괴, 광범위한 정신·심리적 장애의 만연, 사라져가는 질병이었던 성병의 전염병적 유행,²²⁾ 엄청난 수효의 태아를 죽이는 일 등은 사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특별히 젠더주의가 야기하는 가장 심대한 악영향은 아동 및 청소년이 성애화로 말미암아

20) 광혜원, “젠더 이데올로기의 도전 앞에 선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과제”, 『젠더 이데올로기 심층 연구』 (서울: 밝은 생각, 2020), 193.

21) 광혜원, “여성신학자가 바라본 퀴어신학의 이단성 문제”, 『서울대 세미나: 신학과 윤리 포럼』 (2018.08.08), 28.

22) 매독이나 임질같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성병이 귀환했고, 새로운 유형의 성병이 전염병 수준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치명적인 것은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그리고 자궁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성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1,900만 건에 달하는 새로운 성병이 발생하는데, 감염자 중 절반이 15-24세 젊은이인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성적으로 왕성한 청소년들이 가장 위험한 집단인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10대 소녀 중 25%가 성병을 앓고 있으며, 매년 2만 4천 명의 여성이 성병으로 인해 불임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가브리엘레 쿠비는 성애화가 매독과 임질 발병률을 다시 높였으며, 많은 젊은 여성들을 영구적 불임으로 만드는 성병의 폭발적 확산을 불러왔다고 진단한다: G. Kuby, 『글로벌 성혁명』, 314, 330.

크나큰 해를 입는 일이다. 앞서 소개한 젠더주의의 핵심 전략인 젠더 주류화의 패키지²³⁾에는 의무교육의 필수 교과목으로서의 성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교육은 거의 포르노 수준의 왜곡된 교육이다. 잘못된 성교육 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성교육은 초기엔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가 지금은 수치심과 도덕성, 양심의 가책을 말살시켜 버리는 방향의 주입식 세뇌교육으로 실행되고 있다. 본래 독일 공교육에서 시행되는 성교육은 68혁명의 산물이며, 그 주요 목적은 기독교적 가치파괴를 통한 성 해방이었다. 이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저항, 특히 교회들의 저항이 예상되었지만 사실상 침묵하거나 방관함으로써, 68혁명 세력에 의해 성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체계의 전복이 가속화되었다. 결국 기독교적 성도덕의 포기가 오늘날 젠더주의가 강행하는 패륜적 성혁명과 성도덕 붕괴를 자초한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서구세계 성애화(sexualization)의 물꼬를 튼 장본인이었던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의 제자 빌헬름 라이히(W. Reich)가 성도덕 붕괴에 끼친 폐해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라이히는 6천년 동안의 성적 억압이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병들게 했다고 확신하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성욕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재앙은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⁴⁾ 이 확신 속에서 그는 서두에서 논했듯이 일부일처제 결혼과 자녀양육의 도구로서의 전통적 가족을 해체시키는 데 강조점을 두었는데, 특히 성애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가족제도를 폐지하고자 했다. 그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단절을 통한 결혼과 가족의 파괴, 더 나아가 사회문화의 성애화를 통해 교회와 국가의 말살을 획책했던 성혁명이었다. 라이히는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애화 전략의 희생양으로 삼았는데, 성적으로 왕성한 청소년에게 시춘기부터 성행위를 시작하라고 권장하면서 자위를 금욕의 해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찬양하기도 했다.²⁵⁾

그렇다면 왜 빌헬름 라이히를 필두로 젠더주의 추진세력들은 성애화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그 이유는 성애화가 모든 유의미한 관계들(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교회, 인간과 전통, 인간과 부모, 인간과 교사 등)을 파괴시키기 위한 가장 막강한 수단이자 사회 전체의 구조적 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간파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다음세대를 성에 탐닉하고 쾌락에 함몰된 존재로 만드는 성애화가 동력을 얻게 되면, 나머지 목표들(교

23) 젠더 주류화의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남녀의 완전한 평등(동등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의 해체, 이성애적 성규범에 대한 투쟁, 생식권리로 포장된 ‘인권’으로서의 낙태, 성교육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성애화 등.

24) W. Reich/윤수중 옮김, 『성혁명』 (서울: 중원문화, 2011).

25) 같은 책.

회 말살 및 기독교 해체, 사회 교란 및 국가 전복)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히에게 있어서 문화를 완전히 성애화한다는 것은 교회와 국가의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다.²⁶⁾ 그러므로 필자는 현재 시행되는 국가 주도(학교 공교육 주도)의 잘못된 성교육을 통해 사회의 건전한 가치체계를 제거하는 것은, 인류의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고 인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인류역사의 심판을 받을 중범죄라고 단언하는 바이다.

3. 젠더주의가 기독교계에 끼친 퀴어신학의 폐해와 신학계/신학교육 갱신의 위급성

젠더주의가 기독교계에 끼친 심각한 폐해는, 바로 친(親)동성애적 퀴어이론(queer theory)을 발판으로 퀴어신학(queer theology)이라는 이단적인 신학 분파를 만들어낸 일이다. 퀴어신학은 모든 만물이 유전(流轉)한다고 주장하는 후기 현대적 생성의 철학에 근거하여 인간의 성(性)도 남성이나 여성으로 고정되지 않고, 양성이 자유롭게 유동(流動)한다는 사상의 기반 아래 해체주의적 세계관·인간관이 가세하여 만들어낸 신학 사조이다.²⁷⁾ 특별히 퀴어신학은 낯설고 이상함을 뜻하는 ‘퀴어’(queer)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정통 신학에서 낯설고 이상한 것, 괴기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배제되어 변두리로 밀려났던 테마를 신학의 중심에 내세우고 이를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신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낯설고 이상한 것은 동성애를 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퀴어신학은 생소하고 괴이한 대상으로 혐오되어 왔던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비정상적인 동성혼을 정상화하는 데 종국적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퀴어신학자들은 보수주의 성서학자들의 문자주의적 성서해석을 통해 동성애가 죄악시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성서에 기록된 동성애를 역사 비평적으로 재해석한다. 퀴어신학의 대부이자 로마가톨릭 신부요,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다니엘 헬미니악(D. A. Helminiak)은 성서가 동성애자들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대해 아무런 직접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동성애에 관한 한 중립적 견해를 취한다고 책의 서두에서부터 시종일관 강변한다.²⁸⁾ 시카고 신학교의 퀴어신학자 테오도르 제닝스(T. W. Jennings) 또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적 관점이 잘못된 동시에 왜곡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러면서 그는

26) G. Kuby, 『글로벌 성혁명』, 44.

27) 이상원, “퀴어신학에 대한 분석과 비판”,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 (2018.1st), 263.

28) D. A. Helminiak/김강일 옮김,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서울: 해울, 2003), 20-30.

다수의 성서 텍스트들이 동성애 관계와 행위를 긍정함은 물론 찬양까지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성애라는 것이 저주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결론짓는다.²⁹⁾ 심지어 동성과 가까워지려는 욕망이 축하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라는 퀴어신학자들의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퀴어신학자들은 동성애가 죄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격론을 벌이기도 하는데,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가 동성애에 대해 한 번도 명시적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악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주장인데, 즉 동성애가 심각한 죄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동성애에 대해 논쟁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1. 구약의 동성애 정죄에 대한 율법적 교리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것이며, 2. 이방 문화와 달리 성에 관해 매우 보수적이고 일찍이 동성애에 대해 엄격한 교육이 이뤄졌던 팔레스타인의 유대 문화에서 동성애가 큰 사회문제로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며, 3.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고대 유대인 사회가 성에 대해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꺼리는 폐쇄적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동성애와 같은 패역한 행위에 대해 직접적 언명을 피했다고 말할 수 있다.³⁰⁾

퀴어신학자들은 동성애가 죄악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성서 안에 동성애자들이 많다고 유추하면서 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그들이 기본 텍스트로 채택하는 헬미니악의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에는 다윗과 요나단(삼상 18:1, 20:20; 삼하 1:26)의 애정관계를 위시하여 다윗과 사울(삼상 16:21)의 관계 역시 연인관계로 묘사되어 있다(요나단-다윗-사울의 삼각관계).³¹⁾ 또한 롯과 나오미(룻 4:16)의 관계를 문학작품에 최초로 등장한 레즈비언 로맨스로 추정하고,³²⁾ 다니엘과 환관장도 동성애 관계였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수께서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원했던 백부장과 종(마 8:5-13)의 관계 또한 게이 관계라고 주장한다.³³⁾

29) T. W. Jennings, “성서는 동성애를 ‘긍정’한다”,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퀴어신학자 테드 제닝스 강연회 연설내용, <http://m.mildaro.com/5328>에서 인용; T. W. Jennings/박성훈 옮김, 『예수가 사랑한 남자』 (서울: 동연, 2011), 436.

30) 광혜원, “여성 신학자가 바라본 퀴어신학의 이단성 문제”, 29-30.

31) 다니엘 헬미니악은 성서가 다섯 군데에서 동성 성교를 공공연히 다룬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든 사례로 ‘요나단-다윗-사울’ 사이에 추정되는 삼각관계, 남성 간 섹스를 언급한다. 그는 성서를 매우 음란하게 자기 방식대로 번역하면서 성서 인물들의 동성애를 정당화한다: D. A. Helminiak,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181-188; cf. T. W. Jennings, 『예수가 사랑한 남자』, 444-445.

32) D. A. Helminiak,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188-189; T. W. Jennings, 『예수가 사랑한 남자』, 445.

33) D. A. Helminiak,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191-195; T. W. Jennings, 『예수가 사랑한 남자』, 236-260.

듀크대 신학과의 리처드 헤이스(R. B. Hays) 교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혈연적 자매라기보다는 레즈비언 관계였을 가능성도 주장한다.

퀴어신학자들은 성서의 거의 모든 인물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훨씬 더 많이 동성애에 개방적이었을 거라는 무모한 주장도 제기한다.³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참람하게도 하나님마저 동성애자로 만들어버린 사실이다. 테오도르 제닝스는 그의 저서 『예수가 사랑한 남자』에서 예수와 어떤 ‘사랑받던 제자’(나사로·부자청년·안드레·요한 등으로 추정) 사이가 동성애 관계였을 개연성을 제기하면서 소위 ‘케이적 성서 읽기’를 시도한다. ‘사랑받던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누워있는 육체적 친밀함에서 평범한 사제지간이 아니라, 동성 간에 육체관계를 나누는 모습이 엿보인다는 것이다(요 13:21-26).³⁵⁾ 그뿐만 아니라 제닝스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옷을 벗은 상태였고 제자들은 그의 무릎에 눕거나 가슴에 닿을 정도로 바짝 기대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성애적 사랑의 관계를 나타냄은 물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예수가 여자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³⁶⁾

지면에 신기에 대단히 민망하지만 사태를 냉정하게 직시하기 위해 반드시 지적해야 할 내용이 있다. 이는 곧 동정녀(童貞女) 마리아가 낳은 아기 예수가 남성으로부터 물질적 요소(남성성)를 전혀 물려받지 않고 여성인 마리아로부터만 자양분을 받았으므로, 예수의 몸이 ‘자웅동체’(雌雄同體)라는 주장이다. 이에 예수께서 상황에 따라 남성도 되었다가 여성도 되었다가 유동적으로 바뀌는데, 십자가상에서 창으로 옆구리가 찢린 상처에 대한 해석이 망령되기 이를 데 없다. 그들은 예수의 옆구리 상처를 여성의 몸으로 변화된 자궁으로 해석하면서, 외부 상처는 여성 성기의 외음부이고, 피와 물은 여성 성기에서 나오는 애액이라는 것이다.³⁷⁾ 또한 로마가 툴릭에서 행해지는 예수의 상처에 수녀들이 입맞추는 의식은 여성화되신 그리스도의 몸과 동성애적으로 구강성교하는 의식이라는 것이다.³⁸⁾ 무엇보다도 예수가 성매매 여성의 아들 혹은 사생자라거나, 하나님이 남근(男根)을 지닌 남신(男神)으로서 신자들과 성애(性愛)를 나누는 신이라는 참으로 해괴망측하기 이를 데 없는 신성모독적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³⁹⁾

34) D. A. Helminiak,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190.

35) T. W. Jennings, 『예수가 사랑한 남자』, 43-72.

36) 같은 책, 67-72, 291-298.

37) E. Stuart, “Sacramental Flesh”, in: *Queer Theology* (MA: Blackwell, 2007), 66.

38) A. Hollywood, “Queering the Beguines: Mechthild of Magdeburg, Hadewijch of Anvers.”, in: *Queer Theology*, 163.

39) G. Laughlin, “Omphalos”, in: *Queer Theology* (MA: Blackwell, 2007), 125f.

우리는 퀴어신학자들의 성서해석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서를 읽는지를 간파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우정과 동성애 사이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아서 모든 친밀한 관계는 다 동성애 관계로 간주하는 경향이다. 음란의 프레임에 갇힌 상태에서 성서를 해석하니깐 모든 것을 음란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도 든다. 그런데 퀴어신학자들은 성서의 다수 인물들을 동성애자로 간주하는 한편으로, 명백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단정한 성서구절들에 대해선 왜곡된 해석이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구약과 신약에는 동성애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된 구절들(레 18:22와 20:13; 신 23:17; 왕상 14:24; 15:12; 22:46; 왕하 23:7; 롬 1:24-27; 고전 6:9-10; 딤후전 1:10)과 함께 문맥상 동성애와 관련된 성구들(창 19:1-11; 사사기 19:16-30; 겔 16:48-50; 유 1:7)도 있는데, 퀴어신학자들은 그동안 보수주의 성서학자들이 이 구절들을 잘못 해석하면서 이성애를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바라보고(이성애 중심적) 동성애를 죄악으로 정죄(동성애 혐오적)해 왔다고 비판한다.

위의 성구들에 대해 퀴어신학자들이 재해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비논리적인 억지 주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그들은 성서 전체를 문맥을 따라 읽으면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막무가내로 왜곡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 사건(창 19:1-11)이 명약관화하게 동성애와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는데,⁴⁰⁾ 즉 이 사건이 악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집단적 강간을 저지르려는 불법을 지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류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고 역공격하는 식이다. 과거엔 동성애자들이 자연적 순리에 위배되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동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지만, 오늘날엔 이미 공공연하게 드러난 동성애자들의 비윤리적 행태보다 이성애자들의 혐오가 훨씬 더 심각하다면서 비난의 화살을 오히려 이성애자들에게 돌림으로써 논점을 흐리기도 한다.

퀴어신학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혐오를 비판하는 강도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이성애와 대립각을 세우는데, 특히 성애와 생식(출산)을 관련시키는 이성애 중심주의가 전통 기독교적 성윤리라는 괴물을 만들었다면서 이것이 동성애 혐오의 뿌리라고 역설한다.⁴¹⁾ 그들은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미화하는 만큼 이성애에 기반한 결혼과 가족제도에 적대감을 드러냄으로써 결혼과 가족적 가치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⁴²⁾ 퀴어신학자 중에서

40) D. S. Bailey,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London: Longmans, Green & Co., 1955), 5; D. A. Helminiak,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41-49; T. W. Jennings, 『예수가 사랑한 남자』, 437.

41) T. W. Jennings, 『예수가 사랑한 남자』, 392.

특히 제닝스는 복음서에 나타난 역사적 예수가 명백히 성적인 비규정성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사람,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전혀 충격을 받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관대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라면서 성 일탈에 개의치 말고 살 것을 년지시 암시하기도 한다.⁴²⁾ 이처럼 제닝스가 결혼 및 가족적 가치를 폄하하고 성규범을 패념치 않는 비윤리적인 방종은 성서에 기반한 기독교적 윤리관에 전적으로 배치되는데, 왜냐하면 성서가 독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족 중심의 성윤리를 지키는 성결한 삶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신학계에서는 퀴어신학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이제는 위중한 문제의식 속에서 퀴어신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퀴어신학이 다른 이단보다 죄질이 훨씬 더 악한 것은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란한 인간의 말로 치환시킬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음란한 잡신으로 전락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2006년 영국에서 발행된 『퀴어 성서 주석』(Queer Bible Commentary: QBC)의 한국어 번역본이 현재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 주석은 성서 66권을 모두 동성애적 관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성서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퀴어 주석 한글판이 보급되어 퀴어적 해석이 일반화되면, 성서적 윤리관에 대한 강한 충동과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농후할 뿐만 아니라, 성서적 가치관을 지키려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문화적·제도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미래세대에서 동성애 옹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상당수 크리스천 청년이 주축이 되어 시대조류에 함몰되어가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신학교육 현장에서 최근 일어났던 일련의 친동성애적 행보는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러한 현실은 퀴어신학의 폐해로부터 한국교회의 청년, 특히 예비 성직자를 보호해야 할 당위적 과제와 책임을 한국교회에 부과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모독하는 퀴어신학에 예언자적 비판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미래세대가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진 건전한 사회인이자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인류문명이 올바른 정도(正道)를 걸어가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사수하기 위해 대리전(代理戰)을 치루는 위중한 시대적 책임을 짊어진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의에 살고 의에 죽는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일념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연합하여 다각도로 치밀하게 대처함으로써, 대내적으론 퀴어신학의 이단성을 규명하는 한편으로, 대외적으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42) 같은 책, 312, 322, 324-325, 339, 343-344, 352-353, 361, 365, 370, 434, 447.

43) 같은 책, 128, 181-182, 255, 258, 446.

막아내야 할 것이다.

4. 젠더주의의 성혁명에 봉착한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책임적 과제

4.1 건강한 가정공동체 구축과 건전한 세대 전승의 당위성

젠더주의의 성혁명이 전통적 결혼 및 가족제도, 특히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성한 결합인 일부일처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필자가 건강한 가정공동체 구축과 세대 전승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간 자신을 지키는 일,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와 문명 자체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랜 연구를 통해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가정은 단순히 자연적·사회적 구성단위가 아니라, 남녀 간의 관계와 세대 간의 관계를 끊으려야 끊을 수 없게 이어주는 생명줄, 인류가 후손에게 대대로 전수하고 길이 보존해야 할 인류의 보고(寶庫)이다. 이러한 가정은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낳기 원하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일부일처제에 기초해야 견고하고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이 안에서 인간의 성(性)이 가장 거룩해지고 보호받고 축복받을 수 있음은 물론 다음세대가 가장 잘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세대는 갈등이 적은 결혼생활을 하는 생물학적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장 잘 성장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은 건전한 사회이자 진실한 신앙인을 배출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삶의 영역은 황폐해지고, 사회와 국가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건강한 가족공동체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와 국가공동체의 안녕과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구축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젠더주의가 감행하는 패륜적 성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서 가정이 해체되고 사람들의 심령이 피폐해지는 위기상황에 봉착하여,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건강한 가정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세대를 이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필자는 ‘존엄한 삶-존엄한 죽음-존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에 몰두하면서 건강한 가정공동체 구축과 건전한 세대전승의 당위성을 절감하고 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건강한 가정적 유대관계는 삶의 질은 물론 죽음의 질도 좌우하는 중요 조건, 곧 ‘삶의 존엄-죽음의 존엄-인간의 존엄’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라고 진단한다. 또한 현재 한국 사회의 심각한 현안 중에서 긴급히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사회문재인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방 기제도 건강한 가정공동체이다. 실제로 가족의 끈끈한 정서적·사회적 지지는 자살 시도자의 행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많은 연구자들은 보고한다.⁴⁴⁾ 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는 가족과 갈등이 많은 반면,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은 자살행동이 매우 낮아진다. 그러므로 가족의 따뜻한 후원과 진심어린 격려,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과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형제자매의 존재는 자살의 훌륭한 방어요인이 될 수 있다.⁴⁵⁾

한편 가정공동체가 무너져서 가족의 애정어린 지원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고독사(孤獨死) 및 무연사(無緣死)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가정의 중요성을 확연히 인식할 수 있다. 곁에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살다가 혼자 맞이하는 죽음, 자살이나 지병 등으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후 시간이 한참 지나 부패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고독사’, 고독사를 넘어 모든 인간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홀로 죽어 시신을 거두어줄 사람조차 없는 ‘무연사’, 이것은 가족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관계망이 해체된 사회에서 연(緣)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겪는 참담한 사회현상이다.⁴⁶⁾ 고독사가 전통적 가족관계의 붕괴로 말미암은 가정해체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건강한 가족관계는 서로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기 때문에 개개인과 사회구성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정서적 안전망이다.

건강한 가정공동체 구축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사명을 위해서도 중차대한 일이다. 특히 “젊은이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격언이 있는데, 이것은 이 영적·사상적 전쟁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지를 결정하는 말이다. ‘전통’(tradition)이란 단어가 ‘전수하다’는 의미의 라틴어 ‘트라데레’(tradere)에서 유래하듯이, 만일 어떤 세대가 그 조상들로부터 인간이 반드시 지녀야 할 미덕을 전수받지 못하면, 그들 역시 다음세대에 이를 전수해주지 못할 것이다.⁴⁷⁾ 무엇보다 기독교적 가치체계가 한 세대를 거쳐 다음세대까지 전승되지 못하면, 다음세대는 이를 전수받지 못할 것이며 기독교 전통을 고할 것이다.⁴⁸⁾

44) 박혜원, 『자살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2011), 71-80.

45) E. Durkheim/황보중우 옮김, 『자살론』 (서울: , 2011), 238-239, 241, 323-330.

46) 박혜원,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347-348.

47) G. Kuby, 『글로벌 성혁명』, 301-302.

48)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다음세대가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의 위중함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격언이 가혹한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cf. 박혜원, “한국교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제2종교개혁연구소 엮음, 『제2종교개혁이 필요한 한국교회』 (서울: 기독교문사, 2015), 183.

상황이 이렇다면, 다음세대에 기독교적 가치체계를 전수하는 일은 이보다 더 위중한 일이 없을 만큼 우리 세대의 가장 중차대한 사명일 것이다. 사실상 기독교가 2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가정이 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진정 건강한 가족이 가장 중요한 정서적 안전망이라면, 가장 중요한 영적 안전망은 신앙일진대, 전방위적으로 도전 받는 가정해체에 대항하여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건강한 가정공동체 구축과 건전한 세대 전승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4.2 음란하고 패역한 성혁명에 맞서는 거룩하고 성결한 성혁명

인류문명사를 연구하면서 패륜적 성혁명 세력들이 최소한 200년 동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오늘날 두 번째 성혁명에 이르기까지 서두에서 언급했던 많은 사상가와 활동가들이 검은 연기를 피우며 ‘그들의 때’를 기다려 왔음을 발견하였다. 마침내 두 번째 성혁명의 포문을 연 68혁명 당시 패륜적 성혁명 세력이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너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켜라. 그래서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라는 낙원을 창조하라.”고 기독교를 집중 공략했을 때, 서구의 기독교 교회와 신도들은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방관하거나 침묵하였다. 이로 인해 기독교적 가치체계의 전복이 가속화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성도덕을 포기한 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타락과 패륜으로 몰고 간 성혁명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패륜적 성혁명의 맹렬한 도전 앞에 선 21세기 한국 기독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의미심장하다.

특히 한국 기독교가 음란하고 패륜적인 성혁명에 맞서 거룩하고 성결한 성혁명을 일으켜야 할 성서적 당위성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구약성서에 명료하게 제시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근동에는 절제된 성규범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방족속들은 동성애와 근친상간, 수간 등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했지만, 이 패역한 이교도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이전엔 전례가 없는 거룩한 성혁명이었다(레 11:44-45). 즉 하나님은 동성애(homosex)를 통해 상호보완적 성(性)의 경계를 넘고, 근친상간(incest)을 통해 혈연 간의 경계를 넘고, 동물과의 성관계(zoophilia)를 통해 생물 종(種) 간의 경계를 넘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던 것이다(레 18-20장). 금번에 한국 기독교가 패륜적 성혁명이 도모하는 음란에 대항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일대 전쟁을 치루면서 성결함을 회복하는 역사적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한국 기독교의 체질이 근본적

으로 변화됨으로써 개신교 전래 이래로 맞닥트린 절체절명의 위기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건전한 성윤리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저항은 항상 기독교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는 변함없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⁴⁹⁾ 비록 잘못된 시대사조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세상을 부패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이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결해지기 때문이다.⁵⁰⁾ 이로 말미암아 패륜적 성혁명 세력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적으로 간주하는데, 특히 성혁명을 완수하려면 인간의 성을 혁명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 도덕적 실체를 끊임없이 부여하는 하부구조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하는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점차로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는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기독교의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하고 목회자들이 사생결단으로 동역하는 반(反)동성애 사역에 신학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 평신도와 목회자는 신학자가 교리를 굳건히 세워 영적·사상적 전쟁을 견인해 주길 기대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럽다. 현재 주류 신학계는 동성애 옹호세력에 점령당한 교육현장에서 강자의 눈치를 보면서 포퓰리즘에 영합하거나, 신성모독 수준으로 음란하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신학에 예언자적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민 정서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무엇보다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귀중한 자산 때문에 서구교회와 달리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해왔지만, 신학자들 때문에 전체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힘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불길한 예감마저 든다.⁵¹⁾

지금이라도 한국 신학계는 동성애와 퀴어신학에 올바른 비판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바로 이때를 위해 신학자로 부르심을 받은” 시대적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학자는 결코 사사롭게 학문활동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慧眼)과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49) G. Kuby, 『글로벌 성혁명』, 265.

50) 미국의 보수 가톨릭 대변인 프랜시스 조지(F. E. George) 추기경은 죽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어록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나는 내가 침대에서 편안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뒤를 잇는 사람은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의 뒤를 잇는 사람은 광장에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뒤를 잇는 사람은 무너진 사회의 남은 조각들을 모아 인류역사에서 교회가 늘 그래왔듯이 서서히 문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돕게 될 것이다.”

51) 곽혜원, “한국 신학계는 패륜적 성혁명을 막아낼 준비가 되었는가?”, 『크리스천 투데이』 (2020.02.03).

살아있는 학자의 양심으로 시대문명을 올바른 길로 선도(先導)하라고 그 직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기독교 2천 년 역사에서 신학자 중에 순교자가 거의 전무한 상황 속에서 신학자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는 사도 바울의 경고를 뼈아프게 되새김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예비성직자들이 올바른 신학교육을 받음으로 인류문명사적 위기에 봉착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다음세대에게 인류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숭고한 가치체계와 건전한 문화유산, 무엇보다도 신실한 신앙전통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 기독교는 인류문명이 올바른 정도(正道)를 걷고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대리전(代理戰)을 치르는 시대적·역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젠더주의에 굴복함으로 인해 교회공동체들이 붕괴된 참상을 몸소 겪었다. 서구의 복음적 교회들은 한국 기독교가 성혁명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들 교회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한국에 선교사들을 보내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역으로 한국 기독교가 무너진 서구 교회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무방비로 성혁명에 굴복당한 서구의 잘못된 전철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라 아니할 수 없다. 일단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옆길러진 물이 되므로, 지금은 고군분투해야 할 때다. 교회는 세상의 심장이므로, 한국 기독교가 살아나야만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의식을 갖고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음란하고 패역한 성혁명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거룩하고 성결한 성혁명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4.3 젠더주의의 배후사상인 맑시즘-네오 맑시즘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단호한 응전

지난 세기에 참혹한 세계대전들과 함께 일련의 공산주의 폭력혁명들로 말미암아 1억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양산한 맑시즘(Marxism)이 패망하고 나서, 지구촌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 21세기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맑시즘은 한동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듯 보였으나, 21세기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인류문명을 가공할만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라고 불리는데, 20세기 후반 이후를 주도한 문명 코드이자 글로벌 세계를 장악한 이 포스트모더니즘이 문화의

가면을 쓴 맑시즘으로서 공산주의보다 더 심각하게 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맑시즘의 인류문명사 위협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끝나지 않는데, 마침내 젠더주의를 통해 기사화생하여 다시금 21세기에 암울한 그림자를 던지기 때문이다.

맑시즘은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무너졌지만, 북미와 서유럽에서 젠더주의가 강행하는 패륜적 성혁명을 통해 재기에 성공함으로써 다시금 지구촌을 디스토피아(dystopia)로 몰아가고 있다. 맑시즘과 젠더주의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지만, 사실상 양자의 커넥션은 이미 여러 사상적 경로를 통해 입증되었다.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막강한 위세를 떨치는 시대사조들에는 맑시즘의 망령이 전방위적으로 드리워져 있는데, 특히 젠더주의의 사상적 뿌리인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은 맑시즘의 지대한 영향으로 세력을 공고히 다져왔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성(性)의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의 대상으로 삼은 68혁명과 성정치-성혁명 이론을 만나면서 젠더주의로 변질되었는데, 젠더주의에 자양분을 주었던 68혁명과 성정치-성혁명 이론은 모두 맑시즘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종교개혁으로 건설된 근대 기독교 세계에 총체적으로 반발한 포스트모더니즘을 직접적으로 부각시킨 68혁명은 네오-맑시즘(Neo-Marxism)의 영향으로 반(反)체제-반(反)문화-반(反)기독교의 가치를 올린 이후 히피(hippie) 문화와 베트남 반전(反戰) 운동을 통해 국제화조직화된 좌파 단체들과 결탁하였다. 68혁명 세력은 특히 마오쩌둥(毛澤東)에 열광하여 중국 현대사의 정치·문화적 대재앙이었던 문화혁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68혁명을 전 세계적 문화혁명으로 확산시켰다. 서두에 언급했던 빌헬름 라이히는 체제 전복이론인 맑시즘과 성욕 억압이론인 프로이트주의를 결합하여 성충동 해방이론인 ‘성정치-성혁명 이론’을 주창하면서, 진정한 해방이란 성해방을 동반해야 하며 성혁명을 이루기 위해선 성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때 공산당에 가입하여 섹스폴(Sex-Pol) 운동을 조직했던 라이히는 당시 소련 연방이 행했던 동성애 금지와 임신중절의 금지, 청소년의 성적 자유 억압에 불평을 제기하기도 했다. 라이히 이후 성정치-성혁명 이론은 급진적 페미니즘과 결탁함으로써, 여성 위에 군림하는 헤게모니(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의 가족제도)에 대한 파괴는 물론 남녀 성정체성을 해체시켜야 여성의 진정한 해방이 실현된다고 주장하는 젠더주의로 변모하게 되었다.

여성들을 충동하여 급진적 페미니즘을 급부상시켰던 네오 맑시즘은 21세기 들어와 성소수자들을 다수에 의해 억압받는 자로 부추기고,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인권 논리를 내세워 성소수자 해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소수자들, 특히 동성애자들은 대체로 기독교에 대해 극도의 증오심을 갖는 경향인데, 왜냐하면 기독교가 동성애를 엄중한 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오 맑시즘은 성소수자를 혁명의 전위부대로 동원함으로써 기독교 가치체계를 해체시키는 문화혁명의 핵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네오 맑시스트들이 기독교를 해체시키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혁명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특히 젠더주의를 활용하는 이유는, 젠더주의가 보편화되면 기독교적 가치질서(특히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맑시즘 혁명을 성공하려면 교회를 해체시켜야 하는데, 그 전략으로 가공된 도구가 바로 젠더주의라는 것이다.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실패했던 맑시즘이 북미와 서유럽에서 21세기 들어와 젠더주의가 강행하는 성혁명의 성공을 통해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선 나날이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빈부 양극화)를 결정적 계기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재논의되고 있다. 구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방황하던 21세기 한국의 좌파는, 유럽의 68혁명을 대안으로 여기는 가운데 성소수자 투쟁으로 세력결집에 성공한 유럽 좌파의 노선을 추종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맑시즘을 논의하는 토론장에는 거의 예외없이 성소수자 투쟁 및 해방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의제로 다뤄진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동성애를 단지 동성 간의 애정행각이나 성도덕의 측면에서만 인식해왔지만, 젠더주의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들은 동성혼 합법화 정치투쟁을 맑시즘 혁명 그 자체로 본다.⁵²⁾ 이러한 맥락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V. Frankl)이 말한 “앞으로의 세계는 가장 강력한 두 세력(기독교와 맑시즘)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은 적중하였다.

2020년 우리는 인류문명사가 대전환을 이루는 총체적 난국의 시대를 맞닥뜨리고 있다. 필자는 고뇌하던 청년시절 느꼈던 민족과 역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담감을 다시금 절감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하루에도 수차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님, 이 위중한 역사적 국면에 왜 우리를 실존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깨달은 이상 무조건 감당해야만 하는 숙명적 사명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 신앙 양심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오직 순종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깨달음이다. 필자는 2천 년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극소수의 깨어있는 이들에 의해 이뤄져 왔음을 깊이 확신하고 있기에, 모든 기득권과 생명마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이

52) Cf. N. Carlin & C. Wilson/이승민 & 이진화 옮김,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서울: 책갈피, 2017), 124-208; 이정훈,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17.

무겁지만은 않다.

맑시즘과 주체사상이 한국 기독교 안에 전방위적으로 깊이 침투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 기독교 내 특히 주사파의 실체에 대해선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주요 교회기관들에 암세포처럼 뿌리깊게 포진해 있는 줄은 몰랐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Marx-Leinin) 유물론 사상과도 전혀 맥을 달리하는 ‘김일성 유일신앙’인데, 이것을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추종한다면 이들의 정체성은 대관절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한국교회 각 교단에 깊이 침투한 현실은 기독교 전체에 큰 화를 자초하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룩해야만 할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있다. 한국 신학계 안에 유입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반성서적·반기독교적 시대사조들(맑시즘, 네오 맑시즘, 젠더주의 등)이 척결될 수 있도록, 신학교들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신학자들이 교리를 굳건히 세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영적·사상적 전쟁을 선두에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마 4:17; 마 1:15) 복음이 왜곡됨이 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과 주권, 창조질서를 사수하기 위해 순교자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4.4 동성애에 대한 총체적 연구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젠더주의가 옹호하는 동성애를 정죄하는 성서의 입장은 시종일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앞장에서 기술했듯이, 구약과 신약에서 직접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언급한 구절은 레위기 18:22와 20:13, 로마서 1:24-27; 고린도전서 6:9-10; 디모데전서 1:10이며, 문맥상 동성애와 관련된 성구는 창세기 19:5; 사사기 19:22; 유다서 1:7이다. 먼저 레위기 18장과 20장 말씀은 당시 이방민족 사이에 동성애가 편만했음을 기술하면서 이 풍습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טוֹעֵבָה, toevah)⁵³ 여기신다는 것과 이를 멀리하는 것을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選民)의 정체성으로 명령하고 있다. 특히 20장에서 동성애(13)는 간음(10-11), 근친상간(12,14), 수간(15-16) 등과 함께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의 목록에 포함됨으로써, 모든 민족이 다 동성애를 행해도 아뢰 하나님을 백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한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종교개혁

53) 이 단어는 레위기에서 오직 동성애를 금지하는 조항에만 쓰인 가운데 비정상적인 성관계(레 18:26, 27, 29, 30)에 적용되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신득일, “레위기의 동성애 법”,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서울: 킹덤북스, 2016), 90.

혁을 단행할 때마다 동성애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왕상 14:24; 15:12; 22:46).

신약시대에 와서도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한 입장은 계속 견지되는데, 특히 성서 전체를 통해 동성애에 대해 핵심적 가르침을 제시하면서 레즈비언 성관계를 언급하는 유일한 본문은 로마서 1:26-27이다. 여기서 바울은 동성애로 말미암은 폐해를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말씀하면서 당시 권세를 휘두르는 이들을 위시하여 수많은 사람이 동성애를 행하던 사회를 향해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다. 동성애 옹호세력은 바울이 오늘날과 같은 젠더 정체성에 무지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비판했다고 주장하지만,⁵⁴⁾ 그가 동성애자들을 구분하여 일부에게는 관대하고 일부에게는 가혹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울은 모든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슬러 ‘역리’(παρὰ φύσιν)로 나아가는 행위임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선언하였다(고전 6:9). 단언하면,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신약시대에서도 동성애를 가증한 죄로 여기고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표지, 곧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정체성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겠다.

동성애를 정죄한 성서에 근거하여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로 제정되면서 가장 먼저 금지했던 것이 바로 동성애였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했는데(대표적: ‘거룩한 혼인’이라는 가정윤리의 신성함을 고양하고자 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동성애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범죄, ‘순리에 역행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부당하고 불익한 행위로 간주), 이에 의거하여 4세기 말엽 이후 로마제국은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특히 유스티니아(Justinian) 황제는 신성모독과 동성애를 동일하게 불경건한 행위로 간주하여 538년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령(Justinian Novella)을 제정했는데, 여기서 동성애를 ‘자연에 반하는 행위’이자 사형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명시하였다. 중세시대에 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입장은 더욱 공고해졌고(대표적: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성애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물론 자연에 어긋나는 죄악으로 정죄) 14세기부터 동성애 금지는 더욱 강화됨으로써, 당시 동성애자들은 서구세계 어느 곳에서도 피난처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동성애자들에 대한 극형의 역사는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와 그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전파와 함께 지하로 숨어들었던 동성애는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물질적 풍요와 성적 쾌락의 추구, 욕망대로 살 수 있는 막대한 힘의 축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주변과

54) Cf. J.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109ff.

중심의 경계를 허물고 거대담론 및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으로 젠더주의가 발흥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소외된 것, 주변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인종, 민족, 계급, 성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오랜 세월 숨어있었던 성소수자들이 차별당해왔던 유색인종과 여성들의 틈에 끼어 그들의 존재감을 교묘히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성애의 죄성을 명시한 기독교의 쇠퇴가 동성애 번성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역사상 동성애를 가로막았던 유일한 세력은 교회공동체였는데, 기독교가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면서 동성애가 번성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동성애에 대한 평가가 지난 세기 급변한 상황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실 정신의학의 대가였던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 칼 융(C. G. Jung), 알프레드 아들러(A. Adler) 등의 영향 아래 동성애는 심리적 성 정체성 장애(sexual identity disorder)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다가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APA)가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의학적 논의의 결과가 아니었고 고위층을 점유한 동성애 옹호 세력의 강력한 로비와 정신의학과 의사들에게 가해진 정치적 협박으로 말미암은 일이었다. 일명 ‘전국 게이특별팀’ (National Gay Task Force)이 ‘정신장애 진단통계편람 III’(DSM-III)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기 위해 1970~1973년 APA 학술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행했던 살해위협과 폭력 행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당시 언론보도에도 남겨져 있다.⁵⁵⁾ 바로 이것이 동성애에 대한 그동안의 역사적 판세를 역전시키는 순간이 됨은 물론, 추후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합리적 토론 자체를 차단시켜 버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는데, 그 재앙적 결과는 진실에 대한 침묵의 강요와 정치적 악용이었다. 이로부터 17년 후 세계보건기구(WHO)가 APA의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오늘날에는 동성애가 ‘자연적 변이’로 간주되는, 그야말로 인류문명의 흑역사가 열리게 되었다.

55) 미국정신의학회(APA)의 불의한 결정은 수십년 간 논란이 됨으로써, 많은 의사들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다음 논문을 참조: J. Drescher, “Out of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epathologizing Homosexuality”, *Behavioral Sciences* 5 (2015), 565-575; ‘뉴스위크지’(Newsweek)는 당시 APA 회의상황에 대해 이렇게 보도한 바 있다: “지난 2년 동안 게이 해방조직은 여러 차례 의학회의들을 방해해왔고, 30여명의 무장된 그룹이 워싱턴에서 개최된 APA 회의장에 난입하였다. 그들은 정상적 회의의 진행을 못하도록 20여분 동안 회의를 혼돈상태로 뒤집어놓았다”(1971.08.28). 3년간의 살해위협과 폭력사태에 겁먹은 APA 회원들은 결국 3분의 2가 불참한 회의에서 동성애를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하였다(전체회원 17,903명의 32.7%인 5,854명 찬성). 동성애 옹호세력은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엄청난 협박과 폭력을 철저히 은폐하면서 이를 APA의 과학적 승리로 선전하지만, 역사는 이 사건을 ‘과학이 사회적 이슈에 굴복당한 정치적 사건’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아무리 동성애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태로 정당화한다고 해도, 성소수자들,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 위에 드리워진 치명적 자가면역질환(HIV/AIDS)은 이들의 불행한 인생 말로를 우려케 한다. 동성애자들은 정신질환, 특히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자살충동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살률이 이성애자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심지어 동성혼이 합법화된 국가들에서도)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⁵⁶⁾ 필자는 특별히 젠더주의의 최대 희생양인 남성 동성애자들의 고독사 위험성을 우려한다.⁵⁷⁾ 무엇보다도 에이즈와 동성애의 명백한 상관성이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⁵⁸⁾ 2000년 이래 에이즈 신규 발병이 전 세계적으로 35%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유독 대한민국만이 급증(특히 10~20대 남성이 가장 심각)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의 다음세대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심히 우려케 한다. 이처럼 상황이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책임감있게 역사 변혁을 선도해야 할 유력한 국제기구들(UN·EU)과 서구세계의 공권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동성애와 관련된 부조리한 실태를 은폐하고 동성애 옹호활동을 감행하는 일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만한 직무 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동성애 옹호세력이 이 문제를

56) 남성 동성애자들은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아서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자살률도 높고 단명한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연구조사의 공통된 결론이다. 로몬드와 소렐-퀴비졸즈(B. Lhomond & M. J. Saurel-Cubizolles)는 1997~2007년 영어와 불어로 출판된 22개의 논문을 리뷰하여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에 비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양성애자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신현우, “동성애의 원인과 해결: 성경과 과학의 진단과 처방”,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서울: 김영북스, 2016), 110~111쪽에서 인용. 2015년에도 코크란(S. D. Cochran)은 동성애자들이 더 높은 자살 위험을 겪는다고 지적하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S. D. Cochran, “Mortality Risks Among Reporting Same-Sex Sexual Partners: Evidence From the 2008 General Social Survey National Death Index Dat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5/2(2015), 358-364.

57) 필자가 진단하는 자살 및 고독사의 최대 위험군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병을 앓으면서 혼자 사는 중장년 이혼 남성 혹은 독신 남성이다. 그런데 남성 동성애자들은 주로 40세 이전에 무수히 많은 파트너들과 복수연애 하면서 성적으로 방종하는 삶을 살다가, 40·50대 이후가 되면 그로 말미암은 각종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파트너들에게서 버림받고 실직하고 파탄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필자는 향후 많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병든 몸으로 외롭게 살아가다가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직격탄을 맞게 될 거라고 우려한다: 광혜원, “젠더 이데올로기가 야기하는 가정해체와 건강한 가정 구축의 당위성”, 51.

58)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팀”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HIV/AIDS 감염인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HIV/AIDS 감염의 발생은 서서히 감소하는 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의 신규 HIV/AIDS 감염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젊은층(18~29세)의 감염 실태가 매우 심각한데, 주된 감염 경로로 동성 및 양성 간 성 접촉(71.5%)으로 지목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HIV 감염 증가의 첫1단계는 남성 간 성행위 때문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김준명, “국내 HIV 감염의 감염 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 <서울대 세미나: 성과 생명 윤리 포럼>(2018.10.15.), 27-34.

‘차별받는 소수자의 인권 보호’ 프레임으로 선동함으로써, 동성애라는 비윤리적 현실의 본질을 철저히 은폐하고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도록 사태를 호도해버린 일이다. 이로 인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마치 사회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非)인간적·반(反)지성적 행태로 오인됨으로써, 동성애 문제에 대한 건전한 담론과 사회적 공론화가 아예 차단되어버린 상황이다. 더욱 착잡한 현실은 동성애 옹호세력이 영향력 있는 미디어와 인권단체를 앞세워 동성애를 미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으로, 글로벌 국제기구와 막강한 국가공권력을 등에 업고 동성혼 법제화를 강행하면서 반대자들(주로 기독교 공동체)의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일이다.

오늘날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들의 결정에 따라 반동성애를 외치는 교회와 신도들이 교권과 공권력에 의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조차 악의 세력이 편만하게 정착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인류문명의 무모한 도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인류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보편타당한 윤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와 관련하여 타종교들이 일체 함구하면서 불의한 타협의 길을 걷는 데 반해, 기독교는 동성애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반(反)인권적 폐해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의학적 문제를 고발함으로써 반(反)동성애를 표명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력의 연합, 일명 ‘악(惡)의 연합’이 이루어져 기독교를 핍박하는 위태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⁵⁹⁾ 이러한 문제상황 속에서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과제는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한 학제 간 총체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4.5 젠더 페미니즘 주도로 세상을 전복시키는 혁명과 크리스천 여성의 중차대한 사명

인류역사상 전통적 가정공동체에 가장 적대적인 젠더주의는 본래 페미니즘에서 파생함으로써, 정확히 말해 이것은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의 변질된 시대사조이다. 페미니즘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상적으로 변천해왔는데, 이는 크게 제1세대: 초기 페미니즘

59)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점차로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는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글로벌 성혁명 세력은 기독교를 철저히 적으로 간주하는데,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려면 이를 지탱하는 가족제도와 인간의 성을 혁명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하는 교회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1789~1914), 제2세대: 급진적 페미니즘(1914~1990), 제3세대: 젠더주의(1990~)로 구분된다. 19세기 중엽 여권신장 및 남녀평등 운동으로 태동한 초기 건전한 페미니즘은 68혁명을 결정적 분기점으로 급진적으로 선화했다가, 21세기 들어와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시대사조로 급부상한 것이다. 이처럼 젠더주의와 급진적 페미니즘과 같은 뿌리에서 연원하므로, 필자는 젠더 페미니즘(gender-feminism)이라는 시대사조를 주창하였다. 우리는 두 시대사조의 사상적 결합인 젠더 페미니즘을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양자를 함께 조망하고 분석해야 성정체성이 해체되는 이 시대의 문명사적 위기를 근원적으로 파헤치고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⁰⁾

그렇다면 ‘왜 페미니즘은 젠더주의로 변질되었는가?’, ‘젠더주의를 강행한 중추세력, 결혼 및 가족구조를 해체시키는 성혁명 세력은 누구인가?’, ‘어떤 연유로 이 세력은 생물학적 성인 섹스(sex) 대신 사회·문화·심리적 성인 젠더(gender)를 성정체성의 주류 용어로 보편화시켰는가?’ 이 거대한 움직임의 주체는 바로 맑시즘에 사상적·정신적 기반을 둔 젠더 페미니스트 여성들이었던 것이다. 이들을 대내외적으로 선동했던 가장 유력한 동인은, 남녀차별이 도무지 극복되지 않으니까 아예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시키는 젠더주의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여성차별의 강고한 질서인 결혼 및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야말로 격변과 파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들은 성차(性差)가 생물학적 결정이 아닌 사회적 관행의 결과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성별을 의미하는 섹스 대신 젠더를 그토록 중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만한 문제는 종전까지는 맑시즘이 노동자를 선동하여 노동자 vs. 자본가 대립구도로 계급투쟁을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여성을 총동하여 여성 vs. 남성의 극심한 대립각도로 몰아가면서 여성을 이용하는 현실이다.⁶¹⁾

앞서 논했듯이, 우리는 여성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여성차별의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기독교 2천년 역사 속에서도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심각하게 훼손당함으로써, 유력한 교부나 신학자들은 여성이 열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인류를 타락시킨 죄인으로 정죄하거나, 생리적 이유로 여성을 불결하다고 혐오하기도 했다.⁶²⁾ 이러

60) 광혜원, “젠더 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 <16> 성혁명과 가정공동체 붕괴①, 『국민일보』 (2020.02.11.).

61) 한편 젠더주의는 성소수자, 특히 동성애자를 부추겨 그들이 서구세계에서 차별받았던 역사를 리마인드시킴으로써 이성애자에 대한 투쟁을 감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맑시즘의 투쟁노선이 과거 노동의 영역에서, 오늘날 성의 영역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62) 같은 책; 정용석, 『기독교 여성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61-65쪽; E. Clark, *A Women in the Early Church* (Wilmington: Mavhael Glazier, 1983), 51-101.

한 맥락에서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 존 스토틀(J. Stott)는 여성 억압이 너무나 장구한 세월 만연되어 왔기 때문에 남성 지배적 사회가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페미니즘 문제는 여성들이 성별 때문에 제도적·사회적 불의로 고통을 받는다는 확신에서 나온 ‘성별에 근거한 불의를 철폐하는 운동’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성들의 정의에 대한 외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서 ‘정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에 긴급한 과제를 던진다는 것이다.⁶³⁾

이 지점에서 우리는 크리스천 여성들의 책임적 역할과 사명이 문제해결의 중요한 관건이라는 사실을 직감한다. 인류역사상 매우 이례적으로 ‘여성 주도’의 패륜적 성혁명이 이 세대와 이 세상을 전복시키려는 위기의 시대에 인류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내다보는 혜안(慧眼)과 인류의 안녕(安寧)을 최우선적 가치로 생각하는 사려깊은 책임감, 건강한 가정공동체를 구축하려는 깨어있는 여성들의 헌신적 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 이 시대에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크리스천 여성들의 사명을 견고하게 다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여성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적인 위계질서가 공고하게 구축됨에 있어서 성경을 왜곡되게 번역하고 편협하게 해석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부정적 영향을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우 의아한 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을 원죄(原罪)의 근원으로 보는 관점이 유효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정 남성과 여성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성서에 입각하여 남녀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지향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특히 남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올바른 성서해석의 틀은 바로 ‘하나님 나라’(마 4:17; 막 1:15)이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세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실현되는 세계인데, 이것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기준, 올바른 남녀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⁶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남녀는 성별에 따라 명백히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63) J. Stott/정옥배 옮김,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2011), 367.

64) Cf. 광혜원, 『현대세계의 위기와 하나님의 나라』 (서울: 한들, 2008), 309-318.

영 안에서 ‘하나’이다(갈 3:28). 이런 연유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성의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할 권리를 갖지 않으며, 어떤 성도 다른 성에 의해 그의 가치와 존엄성을 침해당할 수 없다. 남녀는 서로를 차별하거나 멸시할 수 없고, 억압하거나 착취할 수 없다. 이를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창 1:27)을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 기독교 안에서 여성의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⁶⁵⁾ 기독교 복음 전래 덕분에 여성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성의 권리와 위상이 크게 진일보한 일반 사회와 대비되면서 양성평등 사안은 한국 기독교에 대한 뼈아픈 질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젠더 페미니즘 세력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 여성은 예나 지금이나 양성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교회 여성을 충동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신도는 남신도보다 수적으로 월등히 많음에도 교회의 중심적 리더십에서 배제된 가운데 주로 교회의 부수적인 일을 맡고 있다. 소수 교단에서만 여성의 목사 안수와 장로 임직이 허용되지만, 남성 중심적 위계구조 속에서 여성 사역자는 여전히 남성 사역자를 보조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안타까운 일은 남신도가 여신도를 하대하는 것도 유감스럽지만, 여신도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현실이다. 현재 한국 기독교 안에서 지적으로 우수한 여신도들이 남녀차별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절망하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불상사도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교회 여성들의 헌신이 너무나 아깝게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문제는, 남성 목회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성범죄가 한국 기독교 차원에서 근본적 성찰과 쇠퇴로 이어지지 못하는 일이다. 목회자들의 성폭력은 대부분의 경우 은폐·축소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징계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실인데, 이것이 얼마나 한국 기독교의 전도 및 선교사역을 후퇴시키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실족시키는지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기독교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점점 더 거세게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젠더 페미니즘에 응답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만약 한국 기독교가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남녀차별 장벽에 상심한 교회 여성들 중에 변종 페미니스트들이 양산되는 현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여성들의 사명을 일깨울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상당수 교회 여성들이 젠더 페미니즘에 영합하여 남성 중심적인 위계질서와 여성 차별적인 교회문화를 강하게 성토했고 있는데, 이 추세는 나날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65)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서울: 두란노, 2016), 8-11, 126-135.

최근에 한 여성신학자는 “교회에서 주입하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닌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폭로하면서, “목사님의 성차별적 설교도 기독교 가치관이 아닌 자기 가치관에 따라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하라고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다.⁶⁶⁾

페미니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필자의 개인적 입장을 토로하고자 한다. 필자가 페미니즘을 추종하는 여성들을 대하는 기본적 태도는 큰 틀에서 설득하려는 입장이다. 이들을 불필요하게 공격하면 영영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일단 여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나님 진리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물론 맑시즘에 기반하여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을 전개하면서 가족제도를 붕괴시키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선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필자가 포용하려는 여성들은 여성차별 때문에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이다. 기독교 신학자로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신학계와 목회현장에 여성의 존엄성이 뿌리내려야 한국 기독교가 젠더 페미니즘을 향해 당당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남녀가 공존·상생하면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패러다임을 개혁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한국 기독교가 여성들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면, 초대교회에서 그러했듯이 여성들은 다시금 생명을 다해 하나님 사역에 헌신할 것이다. 그러면 일명 ‘악(惡)의 연합’을 이룬 안티기독교 세력이 교회의 몰락과 그리스도인의 배교를 획책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이제 한국 기독교는 남성과 여성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다. 필자는 남녀 파트너십의 관점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기본 틀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남녀관계를 위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확신한다. 남녀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영적 존재로서 서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협력하여 창조세계를 돌보고 섬기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상호 간에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는 동반자이자 서로 나란히 코이노니아(koinonia)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파트너이다.⁶⁷⁾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요”(행 2:18; cf. 율 2:29)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주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위해 부르셨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은 주 안에서 서로의

66) 최순양, “교회가 주입하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 아닌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뉴스앤조이』 (2020.01.28).

67) 강호숙, 『성경적 페미니즘과 여성 리더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462-466.

존재로 인해 지음을 받고 결국 모두 하나님에게서 생겨남으로써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가는 동역자인 것이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전 11:12).

참고 문헌

- 강호숙. 『성경적 페미니즘과 여성의 리더십: 복음주의와 페미니즘의 만남』,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 _____. 『여성이 만난 하나님: 한국교회에서 여성의 하나님을 말하다』, 서울: 넥서스, 2016.
- 곽혜원. 『삼위일체론 전통과 실천적 삶』,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_____. “여성 신학자가 바라본 퀴어 신학의 이단성 문제”, <서울대 세미나: 신학과 윤리 포럼>(2018.08.08).
- _____.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젠더 페미니즘과 한국 기독교의 과제”, <기독교학문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2019.10.26).
- _____. 『자살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인의 자살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접근』, 서울: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2011.
- _____. 『존엄한 삶 · 존엄한 죽음: 기독교 생사학의 의미와 과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 _____. “젠더 교육의 위험성과 올바른 다음세대 교육의 당위성”, <학교 교육에 침투한 젠더 전체주의>(2019.10.08).
- _____. “젠더 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 「국민일보」 (16회: 2020.02.11/17회: 2020.02.18).
- _____. “젠더 이데올로기가 야기하는 가정해체와 건강한 가정공동체 구축의 당위성”,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2019.09.18).
- _____.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제2종교개혁연구소 엮음, 『제2종교개혁이 필요한 한국교회』, 서울: 기독교문사, 2015.
- _____. “한국 신학계는 패륜적 성혁명을 막아낼 준비가 되었는가?”, 「크리스천투데이」 (2020.02.03).
- _____. 『현대세계의 위기와 하나님의 나라』, 서울: 한들, 2008.
- 권요한 외 12인 공저. 『생명과 성』 I, 서울: 킹덤북스, 2020.
- _____. 『생명과 성』 II, 서울: 킹덤북스, 2020.
- 김근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동성 성행위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서울: 대장간, 2020.
-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성경적 남녀 관계와 여성 리더십』, 서울: 두란노서원, 2016.
- 김영한. 『젠더주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 서울: 두란노서원, 2018.
- _____. 『퀴어신학의 도전과 정통개혁신학』, 서울: CLC, 2020.
- 김영한 외 34인 공저.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서울: 킹덤북스, 2018.

- 김영한 외 8인 공저. 『젠더 이데올로기 심층 연구』, 서울: 밝은 생각, 2020.
- 김준명. “국내 HIV 감염의 감염 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 <서울대 세미나: 성과 생명 윤리 포럼> (2018.10.15).
- 김지연. 『나의 어여쁜 자야: 디지털 세대를 위한 성교육2』, 서울: 두란노서원, 2020.
- _____. 『너는 내 것이라: 디지털 세대를 위한 성교육1』, 서울: 두란노서원, 2020.
- _____.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동성애, homo+sexuality 그것을 덮고 있는 장막에 대한 이야기』, 서울: 사람출판, 2019.
- 박광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동성애 배후의 사상 연구』, 서울: 누가, 2018.
- 백상현. 『가짜 인권, 가짜 혐오, 가짜 소수자: 동성애 독재 프레임의 실체를 말한다』, 서울: 밝은생각, 2017.
- 성교육교재편찬위원회 엮음. 『성·사랑·가정 II』, 서울: 광연재, 2019.
- 오세라비.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서울: 줍쌀한알, 2018.
- _____.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서울: 리얼뉴스, 2019.
- 이상원. 『기독교 윤리학: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본 이론과 실제』,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6(개정판).
- _____. “퀴어신학에 대한 분석과 비판”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2018.1st).
- 이승구. “퀴어신학의 주장과 그 문제점들”, <제15회 살롬나비 학술대회: 동성애, 과연 인권인가?>(2017.11.24.).
- 이용희.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동성애 합법화 반대운동 12년』, 서울: 두란노서원, 2019.
- 이정훈.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서울: 킹덤박스, 2018.
- 명재진 외 6인 공저.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서울: 밝은 생각, 2020.
- 정용석. 『기독교 여성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최순양, “교회가 주입하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 아닌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뉴스앤조이」 (2020.01.28).
- 한국교회탐구센터 엮음.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 서울: 한국교회탐구센터 IVP, 2018.
- 한국여성연구소 엮음. 『새 여성학 강의: 한국사회, 여성, 젠더』, 서울: 동녘, 2016.
- 허호익. 『동성애는 죄인가: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역사적 성찰』, 서울: 동연, 2019.
- 홍지수.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서울: 북앤피플, 2017.
- 야마구찌 사토코/양희매 옮김. 『동성애와 성경의 진실: 무지개는 우리 가운데』, 서울: 무지개 신학연구소, 2018.
- Bailey, D. S.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London: Longmans, Green & Co., 1955.
- Boswell, J.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Brown, M.L./자유와인권연구소 옮김. 『성공할 수 없는 동성애 혁명』, 서울: 콤파출판사, 2017.
- Bulter, J./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Byerhaus, P. “Widersteht gegen Gender-Ideologie!”(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라!), <기독교 학술원 제10회 해외석학 초청강연>(2016.06.10).
- _____/이선민 옮김. 『현대 선교와 변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Carlin, N. & Wilson, C./이승민 & 이진화 옮김,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선: 마르크스

- 주의적 분석』, 서울: 책갈피, 2017.
- Cheng, P. S./임유경·강주원 옮김. 『급진적인 사랑: 퀴어신학 개론』, 서울: 무지개신학연구소, 2019.
- _____/이영미 옮김. 『무지개 신학: 인증, 섹슈얼리티, 영성 사이의 다리 잇기』, 서울: 무지개신학연구소, 2019.
- Clark, E. A Women in the Early Church. Message of Fathers of the Church 13. Wilmington: Mavhael Glazier, 1983.
- Engels, F./김경미 옮김,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서울: 책세상, 2018.
- Firestone, S./김민예숙 & 유숙열 옮김, 『성의 변증법: 페미니스트 혁명을 위하여』, 서울: 꾸리에, 2016.
- Gramsci, A./이상훈 옮김. 『그람시의 옥중수고 1: 정치편』, 서울: 거름, 1999.
- _____. 『그람시의 옥중수고 2: 철학·역사·문화 편』, 서울: 거름, 1999.
- Grenz, S. J./남정우 옮김. 『성 윤리학』: 서울: 살림, 2003.
- _____/김대중 옮김.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의 응답』,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Guérin, D./윤수중. 『성자유』, 서울: 중원문화, 2013.
- Helminiak, D. A./김강일 옮김.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서울: 해울, 2003.
- Hollywood, A. “Queering the Beguines: Mechthild of Magdeburg, Hadewijch of Anvers.”, in: Queer Theology, MA: Blackwell, 2007.
- Jennings, T. W. “성서는 동성애를 ‘긍정’한다”,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퀴어 신학자 테드 제닝스 강연회 연설내용, <http://mildaro.com/5328>.
- _____/박성훈 옮김. 『예수가 사랑한 남자: 신약성서의 동성애 이야기』, 서울: 동연, 2011.
- Kaufman, M./이다희 옮김. 『남성은 여성에 대한 전쟁을 멈출 수 있다』, 서울: 바다출판, 2019.
- Kuby, G./정소영 옮김. 『글로벌 성혁명: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라』, 서울: 밝은생각, 2018.
- Loader, W. 외 3인/양혜원 옮김, 『동성애에 대한 두가지 견해』, 서울: IVP, 2018.
- Marcuse, H./김인환 옮김, 『에로스 and 문명』, 서울: 나남신서1065, 2004.
- Matchar, E./허원 옮김, 『하우스 와이프 2.0』, 서울: 미메시스, 2015.
- Reich, W./윤수중 옮김. 『성정치』, 서울: 중원문화, 2012.
- _____. 『성혁명』, 서울: 중원문화, 2011.
- Stott, J./정옥배 옮김.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2011.
- Stuart, E. “Sacramental Flesh”, in: Queer Theology(MA: Blackwell, 2007.
- Tanis, J./김준우 옮김. 『트랜스젠더와 기독교 신앙: 트랜스 하나님과 퀴어 예수의 관점』, 서울: 무지개신학연구소, 2019.
- Thielicke, H./김재철 옮김. 『성 윤리학: 신학적 현상학으로 본 기독교적 성 이해』: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 Wink, W./한성수 옮김. 『동성애와 기독교 신앙: 교회들을 위한 양심의 질문들』, 서울: 무지개신학연구소, 2018.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젠더주의의 도전에 봉착한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과제 - 한국 신학계는 패륜적 성혁명을 막아낼 준비가 되었는가?	발표자	곽혜원
		논찬자 (소속)	최태영 (영남신학대학교 은퇴교수)

작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안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한 때에, 한국 조직신학계에서 주목받는 신학자 곽혜원 박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헤아리기 충분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패륜적 성혁명’이라는 키워드로 젠더주의가 지향하는 목표가 결국 ‘패륜’이라고 규정한다. 패륜적 성혁명으로 한국 교회와 사회를 공격하는 젠더주의 물결에 대하여 ‘거룩한 성혁명’으로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자고 부르짖는 발표자의 열정이 절절히 배어있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논평자가 이해한 바를 간략히 정리한다.

1. 현시대의 조류를 ‘해체’라는 한 단어로 해석한다. 전통적(기독교적) 성 규범, 가정, 그리고 기독교를 해체하고 있다고 본다. 요약하면 지난 200년 동안 성혁명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되어 1968년 소위 68혁명에 의하여 급진전하여, 2020년 현재는 서구세계를 점령하였고, 우리나라도 점령 직전에 놓인 상황이다. 성혁명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전개되어 왔는데, 중심 역할을 한 그룹은 네오 맑시즘, 또는 문화 맑시즘, 또는 프로이드 맑시즘으로 불리고 있다. 발표자는 주목할만한 네오 맑시스트로서, 그람시(A. Gramsci), 빌헬름 라이히(W. Reich), 주디스 버틀러(J. Butler) 등을 설명한다.

2. 젠더주의는 패륜적 성혁명을 전략적으로 감행했는데, 그 전략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파워 엘리트와 젠더 페미니스트 주도의 위로부터의 혁명 전략을 구사한다. 그것의 내용은 젠더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서, 이것은 이전의 성차별 철폐 운동의 한계를 경험한 급진좌파들이 아예 성별 자체를 해체하고, 그 연장선에서 남녀 양성에 근거한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결혼제도와 가족제도 자체도 해체하는 데로 나아가는 운동이다. 젠더주의자들은 마침내 유엔(UN)과 유럽연합(EU)을 점령하고, 서구 대학들을 점령한 상황인데, 이대로 두면 현세대, 특히 차세대가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 것이다.

2) 그들은 성 규범을 해체하는 성애화(sexualization) 전략으로서 사회문화 전체(특히 다음 세대에) 타락과 패륜을 확산시킨다. 젠더주의자들이 사회의 성애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 전체의 구조적 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성애에 함몰된 존재로 만드는 데 성공하면 나머지 목표들(교회 말살, 기독교 해체, 사회 교란, 국가 전복)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젠더주의가 기독교계에 끼친 퀴어신학의 폐해를 인지하고 신학계/신학교육 갱신의

위급성을 호소한다. 퀴어신학(queer theology)은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비정상적인 동성혼을 정상화하는 데 종교적 목적이 있다. 발표자는 퀴어신학자들의 억지 성경 해석을 적절히 비판하였다.

3. 젠더주의의 성혁명에 봉착한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책임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건강한 가정공동체 구축

2) 음란하고 왜곡된 성혁명에 맞서는 ‘거룩한 성혁명’을 천명한다. 발표자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계시는 거룩한 성혁명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건전한 성 윤리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저항은 항상 기독교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도 현재 주류 신학계는 동성애 옹호 세력에 점령당한 교육 현장에서 포퓰리즘에 영합하거나, 퀴어신학을 비판하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발표자는 신학자들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룩한 성혁명 진영이 힘을 잃을까 염려하면서, 한국 신학계가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 살아 있는 학자의 양심으로 시대 문명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라고 역설하는데, 필자도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 깊이 공감한다.

3) 젠더주의의 배후사상인 맑시즘- 네오 맑시즘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단호한 응징을 요청한다.

4) 동성애에 대한 총체적 연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 구약시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마다 동성애는 개혁의 대상이었는데, 2000년 교회사도 마찬가지였다. 20세기 동성애 번성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동성애의 죄성(罪性)을 명시한 기독교의 쇠퇴에 있다.

5) 젠더 페미니즘이 주도하는 성혁명에 대항하는 크리스천 여성의 중차대한 사명을 깨우치고 있다. 기독교와 특히 남성 중심의 목회 현장에 대한 간절한 호소가 이어진다. 특히 여성 차별 문제는 교회가 오히려 사회보다 그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 안에서 양성 평등의 시급한 실천이 요청된다.

위와 같이 이 발표문에는 역사적, 영적, 교회적, 신학적, 그리고 특히 여성의 시각으로, 인류 문명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최대 위기의 실제인 젠더리즘의 패륜적 성혁명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 담겨 있다. 패륜적 성혁명으로 치닫고 있는 현대 문명의 왜곡된 흐름에 분노하며, 다음 세대가 겪게 될 황폐한 미래사회에 대한 위기감, 특히 그간 숭한 고난의 제물이 되어왔던 여성들의 눈물이 젠더주의적 페미니즘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피눈물로 변하게 될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무심하게 잠자고 있는 교회와 특히 신학계를 안타까워하며

경종을 울리고자 조바심을 내는 젊은 신학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공유하는 동시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발표문을 읽을 수 있었다.

발표문의 내용 중 어느 하나도 버리거나 시시하게 여길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어,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사소하지만 발표자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나는 발표문에서 크게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성혁명의 기점으로 언급한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세계사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발표문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만 제시되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지 않을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해 준다면 독자나 시청자들의 공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패륜적 성혁명의 흐름에 침묵하고 방관했던 서구 기독교의 오늘의 현실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다. 그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있음을 언급했는데, 그 이후 그들이 내놓은 대책과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알려주시면 좋겠다. 적게나마 서구세계, 특히 서구 기독교가 깨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패륜적 성혁명의 물결을 거스르는 우리의 '거룩한 성혁명이 승리할 것'에 대한 희망 또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